

제2부
대중 신심과 전례의
조화를 위한 지침

들어가는 말

93. 대중 신심과 거룩한 전례의 관계에 대한 다음 지침은 앞서 말한 원칙들을 구체적인 사목 활동에 옮기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목 활동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은 매우 보편적인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만을 언급 설명하고 있을 뿐, 모든 지역의 대중 신심이나 신심 행위를 전부 열거한 것은 아니다. 내용의 유사성과, 그 내용이 때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범주에 든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례 사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할 것이다.

앞으로의 설명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4장은 전례 주년이 대중 신심과 조화를 이루어 거행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전례 주년의 문제를 살펴본다.

- 제5장은 전례와 대중 신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공경을 다룬다.

- 제6장은 전례와 대중 신심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인들과 복자들에 대한 공경을 다룬다.

- 제7장은 교회 예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를 다룬다.

- 제8장은 대중 신심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와 표현인 순례지와 순례, 그리고 그것들이 전례에서 차지하는 의미들을 다룬다.

아래 본문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신심 행위에서 발견되는 갖가지 양식과 표현들을 설명하는 한편, 여러 가지 기본 전제들을 끊임없이 참조하면서 전개된다. 기본 전제들이란 곧 다른 예배 형식들에 대한 전례의 우위성,¹⁰⁶ 대중 신심의 품위와 합법성,¹⁰⁷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의 모든 대립을 막고 전례와 대중 신심의 다양한 형태가 혼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들의 혼합 형태가 발전하지 않게 할 사목적 필요성 등이다.¹⁰⁸

106. 전례 현장, 7.13항 참조.

107. 본문 61-64항 참조.

108. 본문 74항 참조.

제4장 전례 주년과 대중 신심

94. 전례 주년은 교회가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¹⁰⁹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는 시간의 구조이다.

전례 주년에서 “파스카 신비의 경축은 매일, 매주간, 매년을 통하여 전개되는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¹¹⁰ 따라서, 전례 주년은 다른 모든 신심 표현이나 신심 실천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서 시금적으로 여겨야 한다.

주 일

95. “주일”은 “근원적인 축일”이고 “전례 주년 전체의 토대이며 핵심”이기 때문에,¹¹¹ 대중 신심에 종속될 수 없다. 따라서, 날짜의 순서에서 주일에 해당하는 신심 행위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그 주간에 해당하며 대중 신심에서 특히 중요한 주님의 축일의 거행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공경이 로마 전례력과 함께 발행

109. 전례 현장, 102항.

110. 바오로 6세, 전례력의 보편적 규범과 세계 교회의 축일표를 승인하는 자의 교서 *Mysterii Paschalis*, AAS 61(1969), 222면.111. 전례 현장, 106항; *Calendarium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69, *Normae Universales*, 4.

된 순위표에서 주일보다 우선할 경우,¹¹² 그러한 기념을 ‘연중 시기(per annum)’의 주일에 거행하는 것은 합당하다.

민간 문화 전통들이 때로는 주일의 거행에 방해가 되고 주일 거행의 그리스도교적인 특징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의 민간 문화 전통들이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혼합시켜 주일이나 다른 전례 축일의 전례 거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여러 상황에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는 교리교육이나 적절한 사목적 개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한편 이들 전통들과 그에 따른 시민 사회의 새로운 문화 활동들도 신앙의 요구와 어렵지 않게 융화되는 가치들을 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한 사회적 배경의 문화에서 발견되는 가치들, 특히 민간 신심에서 발견되는 참된 가치들을 보존하여, 그 가치들이 주일과 각종 축일의 전례 거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목자들의 식별에 달려 있다.”¹¹³

대림 시기

96. 대림 시기는 기다림과 회개, 희망의 시기이다.

●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최초의 강림을 기억하며 기다림. 역사의 주님이시며 세계의 심판자로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의 결정적인 재림을 간청하며 기다림.

112. *Calendarium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Typis Polyglotis Vaticanis, 1969, *Normae Universales*, 58, 참조.

11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 1998.5.31., 80항.

● 이 시기의 전례에서 자주 예언자들, 특히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마태 3,2)는 말을 인용하며 거론하는 회개.

●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로마 8.24-25 참조) 이 세상에 실재하는 온총이 자라나 충만해짐으로써 신앙의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1요한 3.2 참조) 기쁜 희망.

97. 대중 신심은 특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억하는 시기인 대림 시기에 민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의 탄생이 있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기를 잘 알고 있다.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스라엘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안다.

대중 신심은 가난하고 비천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육신을 취하신 영광의 하느님을 드러낸 이 놀라운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건의 경이로움을 강조한다. 신자들은 동정 마리아께서 임신 중에 겪으신 어려움에 특히 민감하며,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려던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께서 머무르실 여관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깊이 동요된다(루가 2,7 참조).

수세기에 걸쳐 대림 시기와 관련된 대중 신심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된 대중 신심은 신자들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었고, 대림 시기 전례의 여러 가지 귀중한 측면들을 대대로 보존하였다.

대림환

98. 특히 게르만 국가들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초록색 잎들로 엮은 환 위에 4개의 초를 꽂아 두는 것

은 대림 시기의 상징이 되었다.

대림환은 예수 성탄 대축일까지 주일마다 4개의 초를 하나씩 더 켜 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구원 역사의 여러 단계를 상기시키며, 정의의 태양이 솟아오르기까지 긴 밤을 점차 밝히는 예언의 빛을 상징한다(말라 3, 20; 루가 1, 78 참조).

대림 행렬

99. 대림 시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갖가지 행렬을 마련하고, 구세주의 임박한 탄생을 공개적으로 알리며(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행렬에서는 ‘갯별’로), 요셉과 마리아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라틴 아메리카 전통에서는 여관들)을 찾아 헤매셨던 일을 재현한다.

동한기

100. 대림 시기는 북반구에서 동한기에 거행된다. 동한기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여러 노동 분야에서 휴식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중 신심은 활발한 자연의 주기에 매우 민감하다. 동한기를 지내는 동안, 땅 속에 들어 있는 씨앗은 태양의 빛과 열을 기다린다. 태양은 동지와 함께 상승을 시작하며 마침내 씨앗의 싹을 틔운다.

대중 신심을 바탕으로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이들 지역에서는, 그러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인간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하며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¹¹⁴

114. 사목 현장, 34, 35, 67항 참조.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대림 시기

101. 전례는 대림 시기 동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자주 특별하게 기념한다.¹¹⁵ 전례는 성모님의 사명을 예시하고 예언한 구약성서의 여성들을 상기시키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즉시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성모님의 신앙과 겸손을 찬양하고, 구세주의 탄생에 앞선 은총의 사건들에 함께하셨던 성모님의 현존을 강조한다. 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드리는 9일 기도처럼 이 시기에 실현되는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 신심은 또한 대림 시기 동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대림 시기가 “특히 주님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에 합당한 때”¹¹⁶라 하더라도, 대림 시기를 단순히 ‘성모님의 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동방 교회력에서,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성탄과 공현의 신비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 구원의 현현(신현(神顯))을 기념하는 준비 시기(대림 시기)는 성모 신심의 특징을 뚜렷하게 띤다. 곧 하느님의 어머니(Deipara)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에 주의를 집중한다. 동방 교회에서 성모님의 모든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신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적 신비이다. 콥트 예법에서는 이 기간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두고 동정 성모님의 찬미가를 부른다. 시리아인들은 대림 시기의 성모 신심적 특징을 강조하고자 대림 시기를 Subbara, 곧 주님 탄생 예고 시기라 일컫는다. 비잔틴 예법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을 여러 가지 성모 축일과 예식들로 준비한다.

115. 「마리아 공경」, 4항 참조.

116. 같은 곳, 4항.

102. 신자들에게 매우 영향력 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은, 대중 신심을 다양하게 드러내 보이고 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준비 9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정 마리아의 무염시태 대축일은 물론 대림 시기의 여러 가지 두드러진 주제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 대축일은 또한 오랜 메시아의 기다림과 관계되며, 대림 시기 전례에도 사용되는 구약성서의 사건들과 예언들을 상기시킨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준비 9일 기도는 어디서 바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은”(루가 1, 28) 분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로 끝나는 예언적인 내용을 강조하여야 한다.

예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과달루페 성모 축일(12월 12일)을 중심으로 대중 신심 행위들이 다양하게 거행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메리카 교회의 탄생에 깊이 관여하셨으며, 아메리카 여러 민족의 자손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의 선포를 조명해 주시는 빛나는 별이 되셨다.”¹¹⁷

예수 성탄 대축일 9일 기도

103. 예수 성탄 대축일 9일 기도는 전례의 풍요로움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전달해 줄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이 9일 기도는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동시에 신자들이 좀 더 쉽게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저녁 기도는

‘긴 후렴’을 부르게 하고 신자들에게 전례에 참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더 장엄하게 바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신자들이 특별히 애착을 갖는 대중 신심 실천의 전이나 뒤에 바치는 이러한 기도는 전례와 온전히 일치하고 신자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는 이상적인 ‘예수 성탄 대축일 9일 기도’가 될 것이다. 강론이나 향 사용, 전구와 같은 일부 요소들도 저녁 기도에 활용할 수 있다.

구 유

10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부터 성당 안에서 발견되는 구유 그림들 외에도, 13세기부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레초 마을에 만든 구유에 확실한 영향을 받아 집 안에 구유를 만들어 놓는 관습이 널리 권장되었다. 자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유 준비는 가족들이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성서의 주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며 예수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회이다.

대중 신심과 대림 정신

105.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교 신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성탄의 상업화나 피상적인 소비주의의 위협을 자주 받는 대림 시기의 여러 가지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대중 신심은 절제와 소박한 기쁨,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의 분위기를 배제하고는 주님의 탄생을 경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을 임신(受精)되는 순간부터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욱 깊이 의식하게 된다. 대중 신심은 종말에 다시 오실 그분을 깨어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에서 죄를 물리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탄생을 합당하게 경축할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117.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1월 24일 삼중기도에서 한 말씀, 멕시코시티.

성탄 시기

106. 교회는 성탄 시기에 주님 현현의 신비를 경축한다. 곧, 구세주를 맞이한 첫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알려진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초라한 탄생, 베들레헴의 아기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경배드린 첫 이방인들인 “동방에서 온”(마태 2, 1) 세 박사의 주님 공현, 하느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마태 3, 17)이라고 선언하신 요르단 강의 신현(神顯),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제자들이 믿게 된”(요한 2, 11 참조) 가나의 기적 등이 그것이다.

107. 성탄의 근본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이러한 예식들 외에도, 주님 현현의 신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예식들도 있다. 곧,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한 헤로데 때문에 피를 흘린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12월 28일), 예수 성명(聖名) 축일(1월 3일), 예수님께서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충예를 더욱 많이 받게 되신”(루가 2, 52) 성가정 축일(성탄 팔일축제 내 주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신적이고 흠 없는 구원의 모성예를 상기시키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탄 시기는 아니지만 구세주와, 시므온과 안나로 상징되는 당신 백성의 만남과 시므온의 예언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등이 그것이다.

108. 지극히 풍부하고도 복잡한 주님 현현의 신비는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반영되어 있다. 대중 신심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특히 관심이 많다. 대중 신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 예수 성탄의 고유한 ‘은총의 영성’이 지니는 중요성.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이사

9, 5)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신”(요한 3, 16)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이다.

● 예수 성탄 사건이 전해 주는 연대의 메시지. 죄인과 이루는 연대, 곧 하느님께서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¹¹⁸⁾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 곧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그분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다”(2고린 8, 9).

●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놀라운 사건인 모든 탄생.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으며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기(요한 1, 2 참조) 때문이다.

● 모든 시대의 인간이 열망해 온 구세주의 기쁨과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사 9, 5)이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고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 14) 하고 외친다.

●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이 보여 주는 소박함과 가난, 겸손,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정신.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을 직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현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소비주의나 갖가지 형태의 신이교주의가 끼어들어 예수 성탄을 둘러싼 열렬한 신앙의 전통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요청받는다.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109. 예수 성탄 대축일 첫 저녁기도와 전야 미사 사이에,

118. DS 150;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평화와 기쁨의 성탄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력한 수단인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럴과 대중 신심은 나라마다 다른 일정한 형식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례 거행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구유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신자들의 가정에 구유를 마련하는 것은 가정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이때 청원 기도와 찬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럴의 전형적 내용인 루가 복음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를 읽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러한 가정 행사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기도와 찬미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련하는 것 또한 가정 기도를 위한 기회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역사적 기원과는 별도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심어진 나무와(창세 2,9 참조) 십자가 나무를 상기시키며, 십자가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계보, 곧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참 생명 나무이시며, 이 나무는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과와 계병으로 장식한다. ‘선물 상자’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가져다 놓은 선물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도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 성탄 만찬. 전통적으로 식탁에서 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성탄 만찬 의식을 갖는데, 이것은 가족 끼리의 기쁨의 유대를 확립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110. 교회는 가능하면 신자들이 말씀기도로 12월 24일 전야 미사 거행을 준비하기를 바란다.¹¹⁹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성가와 독서, 대중 신심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야 기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11. 중요한 전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대중 신심과도 매우 일치하는 전야 미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 미사를 시작할 때, 로마 순교록에 있는 양식에 따라 구세주의 탄생을 노래로 선포할 수 있다.

- 신자들의 기도는 참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예를 봉헌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야 한다.

- 미사를 마칠 때, 신자들은 성당 안이나 가까운 곳에 만 들어 놓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상에 입맞출 수 있다.

성가정 축일

112.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성탄 팔일축제 내 주일)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예식을 거행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에 매우 적절한 축일이다. 명절을 잘 지키는 다른 유대인 가정들과 함께 과일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루가 2, 41-42 참조) 기억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이날의 미사에 참여하라는 사목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성가정 축일은 또한 우리가 나자렛의 성가정의 보호에 새롭게 의탁하는 기회가 된다.¹²⁰ 곧, 예식의 규정에

119. 「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 215항 참조.

120. “가정 봉헌 기도”(Actus Consecrationis Familiarum), 『대사 총람』, 대사를 읽는 다른 기도, 1항, 50면 참조.

따른 어린이의 축복이 그것이다.¹²¹⁾ 더 나아가 이 축일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혼인 때에 부부가 했던 혼인 서약을 갱신하며, 또한 약혼자들이 약속을 교환함으로써 새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려는 자신들의 바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¹²²⁾

이 축일이 아니라도 신자들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나자렛의 성가정에 자주 의지한다. 성가정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나자렛의 성가정을 그들 가정의 모범으로 삼으며,¹²³⁾ 성가정의 보호에 자신들을 의탁하고, 죽을 때에 도움을 받고자 기도를 자주 드린다.¹²⁴⁾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

113. 교회는 6세기 이래 12월 28일을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로데의 학살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기념일로 지냈다(마태 2, 16-17 참조). 전례 전통은 그들을 ‘무죄한 어린이들’이라고 부르며 순교자로 여긴다. 그리스도교 예술과 시, 대중 신심은 수 세기에 걸쳐 이 “어린 양 때”¹²⁵⁾에 대한 기억을 애정과 연민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였다. 이 감정에는 또한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을 빼앗아 죽인 폭력에 대한 분개심도 섞여 있다.

121. 『축복 예식서』(De Benedictionibus), “자녀들의 축복”(Ordo Benedictionis Filiorum),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85, 174-194 참조.

122. 같은 곳, “약혼자들의 축복”(Ordo Benedictionis Desponsatorum), 195-204 참조.

123. 성가정 협회는 레오 13세가 교황 교서 *Neminem Fugit*(1982.6. 14.)를 통하여 설립하였고(*Leonis XIII Pontificis Maximi Acta*, XII, Romae: Typographia Vaticana, 1893, 149-158면), 요한 바오로 2세가 교령 「교황청 평신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87. 11. 25.)를 통하여 승인하였다.

124. 『대사 총람』, 신심 기도(Piae Invocationes), 83면 참조.

125. 프루덴시우스, *Cathemerinon* XII, 130, CCL 126, Turnholt, 1966, 69면; 『성무일도』(12월 28일),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생명과 존엄, 교육의 권리를 위협하는 무수한 형태의 폭력에 시달린다. 이 순교 축일에 우리는 끔찍한 범죄인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의 비호 아래 희생되어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 지역의 대중 신심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 예배 행위뿐 아니라, 임산부를 도와주고 입양과 어린이 교육 발전을 장려하는 자선 활동을 고무하여야 한다.

12월 31일

114. 대중 신심은 12월 31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을 탄생시켰다. 서방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을 역년(曆年)의 마지막 날로 지낸다. 이 기념일은 신자들에게 빠르고 가차 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신비’를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이중의 감정을 낳는다. 곧 한 해 동안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은총의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하여 참회하고 슬퍼하는 마음과 지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과 복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두 가지 신심 행위를 탄생시켰다. 하나는 신자들과 많은 수도 공동체들에게 침묵 기도의 기회를 주는 성체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한 해를 마감하며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대하여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행위로서 사은 찬미가(Te Deum)를 부르는 것이다.¹²⁶⁾

몇몇 장소, 특히 특별한 성체 신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과 신자 단체들에서는 12월 31일에 밤기도를 드리며 미사 거행으로

아침기도, 찬미가 “다윗의 궁전 여좌 차지하시고.”

126.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6항, 71면.

마친다. 이러한 밤기도는 장려되어야 하며 성탄 팔일축제의 전례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분별 없이 법석을 떨며 송년을 기념하는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새해를 주님께 봉헌하는 밤기도가 되어야 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15. 교회는 성탄 팔일축제의 마지막 날인 새해 첫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낸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동정 성모가 되신 것은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성모님께는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미리 맛보시는 근원이 되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이함으로”¹²⁷ 우리에게는 은총과 구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모님께 바쳐지는 축일인 1월 1일의 대축일은 전례 신심과 대중 신심이 만나는 훌륭한 기회이다. 전례 신심은 이 사건을 전례에 고유한 방식으로 경축하고, 대중 신심은 충분한 교리교육이 병행된다면 성자의 탄생을 두고 성모님께 드리는 다양한 찬미가 기쁨과 행복의 표현이 되게 하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16. 서방에서 1월 1일은 역년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신자들도 함께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며 ‘새해’ 인사를 나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러한 인사를 대중 신심의 표현으로 삼은 이러한 관습에 그리스도교적인 이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자들은 ‘새해’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새해 인사를 나눔

으로써 함축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새해를 주님의 지배 아래 두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묵시 1, 8; 22, 13 참조).¹²⁸

이러한 의식과 오소서, 성령님, 창조주님(Veni Creator Spiritus)을 노래하는 대중 관습을 쉽게 연관지을 수 있다. 이리하여 신자들은 1월 1일에 한 해 동안 그들과 공동체의 생각과 행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령께 기도드릴 수 있다.¹²⁹

117. 새해 인사에는 평화로운 새해에 대한 희망의 표현도 담겨 있다. 평화의 인사는 성서와 그리스도론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것은 또한 강생의 신비와도 관련되어 있다. ‘평화의 본질’은 역사상 모든 인류가 특히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는 전쟁의 시기에 늘 간구해 온 것이다.

교황청은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깊은 염원에 늘 함께한다. 교황청은 1967년부터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 왔다.

대중 신심도 교황청의 이러한 활동에 무심하지 않았다. 평화의 왕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중 신심은 이날을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며, 자유와 형제적 연대, 인간의 존엄, 자연 존중, 일할 권리, 인간 생명의 신성함,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고 평화를 위협하는 불의에 대한 비난 등과 같이 평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치들을 가르치는 날로 삼는다.

127. 『로마 미사 전례서』 1월 1일, 성탄 팔일축제 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본기도.

128. 『로마 미사 전례서』, 부활 성야, 초 준비(부활초 점화) 참조.

129.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6항, 70면 참조.

주님 공현 대축일

118. 주님 공현 대축일과 관련하여, 그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영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전통과 순수한 표현들이 발전해 왔다. 그러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활 대축일과 주요 주님 축일의 장엄 선포. 여러 장소에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선포는 주님 공현 대축일과 부활 대축일을 관련짓고, 또한 모든 축일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대축일을 지향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 ‘주님 공현 대축일 선물’ 교환. 이것은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서 유래하며(마태 2, 11 참조),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탄생시키심으로(이사 7, 14; 9, 16; 마태 1, 23 참조) 인류에게 주신 선물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주님 공현 대축일의 선물 교환은 그리스도교적인 특성을 간직하며, 그 의미가 복음적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네는 선물은 대중 신심을 순수하게 표현해야 하고, 이러한 관습의 그리스도교적 기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낭비나 사치, 허영이 없어야 한다.

- 집 축복. 문설주에 축성받은 분필로 구원의 십자가와 그 해 연도와 세 동방 박사의 이름 첫 글자(C+M+B)를 새겨 넣는다. C+M+B는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소서(Christus mansionem benedicat)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에는 흔히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들의 행렬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는 세 박사의 전구로써 그리스도께서 복을 내려 주심을 나타내며, 자선 활동과 선교 활동을 위한 봉헌금을 모금하는 기회이다.

- 타지에서 온 사람들과 연대 활동.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중 신심은 연대 의식과 개방성을 장려해 왔다.

- 복음화 활동 지원. 대중 신심은 주님 공현 대축일의 강한 선교적 특성을 잘 이해해 왔으며, 1월 6일에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졌다. 특별히 교황청에서 장려하는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 수호 성인 선정. 많은 수도 공동체와 신심 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을 위하여 세례의 수호 성인을 선정한다.

주님 세례 축일

119. 주님의 세례 신비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 일은 주님 공현의 구원 사건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로 막을 내린다. 이 축일은 최근에 와서야 복원되었으므로 아직 어떤 특별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축일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이날의 모든 미사에서 성수 예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강론은 세례와 관련된 상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주님 봉헌 축일

120. 동방 교회에 기원을 둔 오래된 주님 봉헌 축일은¹³⁰ 1969년까지는 서방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 정화 축일로 알려졌으

130. 비잔틴 전례에서 이 축일은 Hypapante 곧 주님과, 시므온과 안나로 대표되는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의 만남에 집중되며, 시므온의 노래(루가 2 29-32)를 반영한다. 이 노래는 이 축일에 사용되는 성가를 통하여 거듭 되풀이된다.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루가 2 32).

며, 주님 탄생 후 40일째인 이날로 성탄 시기가 끝났다. 이 축일은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중 신심 행위들과 관계를 맺어 왔다.

- 신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처음와 보신 하느님의 집에서 하느님을 만나시고, 곧이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신 일을 기념하는 행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 서방 교회에서 이교도의 퇴폐적인 행사를 대신하였던 이러한 행렬은 언제나 참회의 성격을 띠었으며,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길을 밝히는 빛”(루가 2, 32)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렬을 할 때 들었던 초의 축성과 연관되었다.

- 신자들은 당신 아드님을 성전에 바치시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시어 정결례를 치르신(루가 2, 22-23 참조) 성모님의 행위에 감동을 받는다. 대중 신심은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 성모님의 겸손함을 깨닫고, 오래 전부터 2월 2일을 겸손한 봉헌 생활자들을 위한 축일로 지내 왔다.

121. 대중 신심은 하느님의 섭리가 깃든 신비로운 사건인 새 생명의 임신과 출산에 민감하다. 물론 동정 성모님의 독특한 임신과 출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극히 순결하신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애와 쉽게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어머니가 되었으며, 미래의 교회 구성원이 될 새 생명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모님의 정결례를 모방하여, 출산 후의 정결 예식이 발전하였으며, 일부 요소들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로마 예식서』 개정판에는 해산 전 부인의 축복식과¹³¹⁾ 해산

131. 『축복 예식서』, “해산 전 부인의 축복식”(Ordo benedictionis mulieris ante partum), 219-231.

후 부인의 축복식이¹³²⁾ 들어 있다. 해산 후 부인의 축복식은 산모가 아기의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만 가진다.

산모나 부부가 교회의 기도와 일치하여 행해져야 할 이러한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곧, 기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친교를 나눔으로써 임신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해산 전 부인의 축복식), 아기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해산 후 부인의 축복식).

122.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주님 봉헌에 관한 복음 이야기에서(루가 2, 22-40)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성가정의 가난, 성모님의 동정성과 같은 몇몇 요소들을 이끌어 내어 2월 2일을 갖가지 형태의 봉헌 생활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축일로 지낸다.

123. 2월 2일의 주님 봉헌 축일은 아직 대중 신심의 특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들도 이 축일의 참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중 신심이 이 축일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오로지 성모 신심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주님 봉헌 축일을 “아드님과 어머니를 함께 기념하는 축일로 보아야 한다.”¹³³⁾는 사실도 그러한 주객전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신자들이 가정에 보관하는 초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순 시기

124. 사순 시기는 부활 시기를 앞두고 부활을 준비하는

132. 『축복 예식서』, “해산 후 부인의 축복식”(Ordo benedictionis mulieris post partum), 236-253.

133. 「마리아 공경」, 7항.

기간이다. 신자들은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준비하거나 기억하고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며, 기도와 금식, 선행(마태 6, 1-6, 16-18 참조) 등 “그리스도인의 참회의 무기”에¹³⁴ 더욱 자주 의지한다.

대중 신심은 사순 시기의 신비적인 측면을 쉽게 감지하지는 못하며, ‘40일이라는 상징’과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의 관계, 사순 시기의 여정에 언제나 제시되는 ‘출애굽’의 신비와 같은 어떠한 위대한 주제나 가치도 강조하지 않는다.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비에 초점을 맞추며, 사순 시기 동안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깊이 주목한다.

125. 로마 예법에서는 제의 수요일 전례에서 엄숙한 상징인 재를 얹는 예식으로 40일간의 참회를 시작한다. 재는 고대 예식에서 회개한 죄인들이 교회법에 따라 참회를 하였던 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재를 얹는 행위는 나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하느님의 자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 등을 상징한다. 교회는 제의 예식을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머물게 하기보다는, 사순 시기 동안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참회의 자세를 상징하는 행위로 삼고자 하였다. 재를 받으러 오는 신자들에게 재를 얹는 행위의 함축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깨우쳐 줌으로써, 회개와 새로운 부활의 다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순 시기 동안 복음적 노력과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참으로 중요한 실재들에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한다. 그것은 곧 불필요한 일들을 자제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연대를 이

134. 『로마 미사 전례서』, 제의 수요일, 본기도 참조.

루고 선행을 쌓는 데에 있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자주 받지 못하는 신자들은, 사순 시기 동안이나 더 좋게는 부활 시기 동안에 증죄를 고백하고 적어도 한 번은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계명을 일깨우는 교회의 오랜 전통을 알고 있어야 한다.¹³⁵

126. 사순 시기에 관하여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는 견해차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사순 시기 동안 전례와 대중 신심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호 작용의 예를 찾자면, 사순 시기 전례가 공지하고 권장하는 특정한 날의 특별한 행사, 특별한 신심 행위, 사도직 활동이나 자선 활동들을 대중 신심이 흔히 장려한다는 사실이다. 옛날부터 사순 시기의 특징이었던 금식의 실천은 신자들을 이 세상의 근심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위에서 오는 생명을 발견하게 하는 ‘행위’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신명 8, 3; 마태 4, 4; 루가 4, 4 참조; 사순 제1주일 영성체송).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공경

127. 사순 시기 여정은 주님 만찬(Coena Domini)의 거행으로 시작되는 부활 성삼일로 끝난다. 성삼일 가운데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은 ‘십자가 경배’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다.

대중 신심은 이러한 십자가 경배를 예표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옛날부터 사순 시기 내내 매주 금요일을 주님의 수난을 기

135. 교회법 제989조와 제920조 참조.

넘히는 날로 지내고 있으며, 신자들은 자연스레 그들의 신심을 십자가의 신비로 향한다.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세주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겪으신 격심한 고통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한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실질적인 그분의 구원의 희생을 깨닫는다.

128.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 대한 다양하고 수많은 신심은 십자가의 신비에 봉헌되었거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실제 유물을 공경하는 성당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세기 초에 ‘성 십자가가 발견’되고 그 이후에 성 십자가의 조각들이 여러 교회에 널리 퍼지면서 특별히 십자가 신심을 불러일으켰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은 보통 대중 신심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다. 찬미가와 기도, 십자가의 덮개를 벗기고 입을 맞추는 행위, 십자가 행렬과 축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흔히 여러 가지 귀중한 형식적 내용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 신심 행위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 신심은 때때로 일종의 계몽을 필요로 한다.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지어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십자가와 빈 무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보석으로 장식되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물건에 십자가를 긋는 것은 축복을 상징한다.

129. 복음서는 예수님의 수난을 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수난기는 이야기의 특정 부분들을 따로 떼어 놓으려는

대중 신심의 경향과 결부되어, 신자들의 관심을 그리스도 수난의 특정한 측면들로 향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신심을 낳았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며 가리켜 보였던, “가시관을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신”(요한 19:5) 채 멸시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오상(五傷)에 대한 신심; 특히 인류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대한 신심(요한 19:34 참조); 그리스도께서 체찍질을 당하신 기둥과 집정관의 사닥다리, 가시관, 못, 예수님을 찢은 창 등 수난의 도구들에 대한 신심; 성의(聖衣)에 대한 신심 등이 그것이다.

흔히 위대한 성덕을 쌓은 사람들이 장려하였던 이러한 신심의 표현들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를 관상할 때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성서와 교부 전통에서 그러하듯이, 수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다.

주님의 수난기 독서

130. 교회는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자주 읽도록 권장한다. 물론 주님의 수난 사화는 신약성서에서 사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든다. 그러므로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병자 성사 예식서』(*Ordo Unionis Informorum Eorumque Pastoralis Curae*)는 주님의 수난기를 전체적으로 아니면 일부분만이라도 읽도록 권장한다.¹³⁶

사순 시기 동안,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세주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수난

136. 『병자 성사 예식서』,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72, 224-229 참조.

사회를 읽어야 한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이 독서는 그 내용과 이야기 방식 때문에 신자들의 관심을 끌며, 참된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곧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참회하게 되며,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 연민과 연대 의식을 느끼고, 만행이신 예수님께서 수난을 통해 모든 형제에게 보여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은유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수난을 받으시는 동안 기꺼이 또 아버지께 위탁하시고 수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다짐한다.

전례를 통해 수난을 기념하는 것 이외에, 복음서 이야기의 각 역할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 ‘극화’할 수도 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성가를 부르거나 침묵 중에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십자가의 길 (Via Crucis)

131. 십자가 경배와 관련된 모든 신심 행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신자들은 이 신심 행위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여정을 따른다. 곧 주님께서 근심에 싸여 기도하셨던 “게세마니라는 곳”(마르 14, 32)이 있는 올리브 산에서부터(루가 22, 39 참조), 주님께서 두 죄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해골산과(루가 23, 33 참조),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아직 장사지낸 일이 없는 무덤이 있는(요한 19, 40-42) 동산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곳곳의 성당과 순례지, 수도원, 시골이나 산길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이 신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애착을 잘 보여 준다. 이들 곳곳의 14처는 저마다 매우 감동적이다.

132. 십자가의 길은 중세기의 절정에 생겨난 다양한 신심을 종합한 것이다. 곧 신자들이 주님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는 성지 순례,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시어 세 번이나 넘어지심에 대한 신심,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며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행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여정’에 대한 신심, 그리스도께서 해골산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형 집행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추시거나 기력이 떨어지셔서 멈추셨던, 또는 당신 수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자 멈추셨던 장소들에 대한 신심 등이 합쳐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포르토 마우리치오(†1751년) 성인이 널리 보급시켰던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 형식은 교황청이 승인하고 대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¹³⁷⁾ 17세기 중반 이후 14처로 구성되었다.

133.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에 타올라 예수님을 결국 해골산에 이르게 했던 거룩한 불(루가 12, 49-50 참조), 곧 성령 안에서 걷는 여정이다. 십자가의 길은 교회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여정이다. 교회의 신랑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에 남기신 말씀과 행위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심의 다양한 요소들이 십자가의 길에 통합되어 있다. 삶을 하나의 여정 또는 순례, 곧 지상의 망명 생활에서 천상의 참 본향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보는 개념,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 스승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루가 9, 23 참조) 그리스도 추종의 요건 등이 그것이다.

137.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13항, 59-60면 참조.

십자가의 길은 사순 시기에 특히 적합한 신심 행위이다

134. 다음은 십자가의 길을 효과적으로 거행하기 위한 유익한 제안들이다.

- 14처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형식의 십자가의 길이 이러한 신심 행위의 전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도처를, 해골산의 여정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십자가의 기도처에 포함되어 있던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성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교황청은 또 다른 형식의 십자가의 길을 승인해 왔으며¹³⁸⁾ 로마 교황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¹³⁹⁾ 이러한 것들은 참된 신심 형태로 받아들여져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관련된 신심 실천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들에게 믿음과 희망 안에서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 주면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부활(Anastasis)을 상기시키는 기도처로 끝나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본떠, 십자가의 길 거행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135. 십자가의 길 묵상을 위한 기도서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 기도서들은 대부분 이러한 신심 행위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 효과를 믿었던 목자들이 편집하였다. 탁월한 신심과 거룩한 생활, 교리와 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평신도들이 펴낸 기도서들도 있었다.

138. 1975년 성년 거행 중앙위원회가 펴낸 *Libro del Pellegrino*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139. 예를 들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1년과 1992년, 1994년에 콜로세움의 '십자가의 길'에서 사용한 본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구장 주교들의 모든 지시를 유념하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서를 선택할 때는 십자가의 길 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건뿐만 아니라 쇠신과 연속성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사목적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서 이야기와 일치하고 분명하고 간결한 양식으로 쓰여진 기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

성가와 침묵, 행렬, 묵상을 적절히 조화롭게 융합한 십자가의 길은 신심 행위의 영적 결실을 거두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

어머니의 길(Via Matris)

136. 그리스도와 고통의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하셨던 것처럼(루가 2, 34-35), 두 분께서는 전례와 대중 신심 안에서도 결합되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사 53, 3)이셨고,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다”(골로 1, 20).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도 “고통을 아는 사람”이셨고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당신 성자와 일치하게 하셨고 그분의 수난에 동참하게 하셨다(Socia Passionis).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유년기 이후 예리한 칼에 찔리듯 고통스러운 일생을 사셨다(루가 2, 35 참조). 그리스도교 신심은 성모님의 삶에서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7가지 사건을 추려 냈다. 이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7가지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십자가의 길을 본떠, 고통의 어머니의 길 또는 간단히 어머니의 길이라고도 하는 신심 행위가 발전하였고, 추후에 사도좌

의 승인을 받았다.¹⁴⁰ 이러한 신심 행위는 16세기부터 이미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의 형태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심 행위의 근본적인 통찰은 시므온의 예언에서부터(루가 2, 34-35 참조) 성자의 죽음과 매장까지, 신앙과 고통의 여정인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 여정은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7가지 고통'에 맞춰 7처로 되어 있다.

137. 이 신심 행위는 사순 시기의 고유한 몇몇 주제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성모님의 고통은 당신 아드님께서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이므로(요한 1, 11; 루가 2, 1-7; 2, 34-35; 4, 28-29; 마태 26, 47-56; 사도 12, 1-5 참조), 어머니의 길은 고난 받는 종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와 한결같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사 52, 13—53, 12 참조). 어머니의 길은 교회의 신비와도 연결된다. 어머니의 길의 각 기도처는 교회에 앞서 동정 마리아께서 보여 주신 신앙과 고통의 여정이며, 교회는 세상 끝까지 그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어머니의 길을 가장 숭고하게 나타내는 것은 피에타상으로, 이것은 중세기 이래 그리스도교 예술에 영감을 주는 무한한 원천이 되어 왔다.

성주간

138. “교회는 성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룩하신 구

140. 레오 13세, 교황 교서 *Deipare Perdolentis*, Leonis XIII Pontificis Maximi Acta, III, Typographia Vaticana, 1884, 220-222면 참조.

원의 신비들을 거행한다.”¹⁴¹

신자들은 성주간 예식에 적극 참여한다. 성주간 예식의 대부분이 대중 신심에 기원을 둔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를 거치면서 성주간 예식 안에 대비되는 형태의 예식이 생겨나, 결국 각각 고유한 특성을 띤 두 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는 순전히 전례적이며, 다른 하나는 독특한 신심 행위, 특히 행렬의 특성을 띤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식 형태는 전례 거행과 신심 행위의 올바른 조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실제로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대중 신심 표현에 기울이는 주의와 관심은 대중 신심이 뒷받침하는 전례 행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성지 주일

종려나무와 올리브 나뭇가지와 그 외 나뭇가지들

139. 성주간은 그리스도의 왕다운 위엄과 그분의 수난 선포를 결합시키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한다.¹⁴²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행렬은 기쁨이 넘치는 민중적인 특성을 띤다. 신자들은 성지 주일에 축복을 받은 종려나무나 올리브 나뭇가지, 또는 그 외 다른 푸른 나뭇가지들을 대개 가정이나 일터에 간직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러한 예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141. 교황청 경신성사성,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Lettera Circolare sulla Preparazione e Celebrazione delle Feste Pasquali*), 1988 1. 16., 27항.

142. 같은 곳, 28항.